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비지원 촉구

황현 도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협, 명예의 전당 건립 예산 중 부족분 70억 지원 요청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황 의장은 16일 전주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내년 6월22일부터 9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 등이 참가하는 태권도대회가 열린다"며 "태

권도 중추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해줄 태권전과 명인전 등 명예의 전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의 전당은 당초 기부금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모금이 부진해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전체예산 176억원 중 기부금과 지

방비를 제외한 70억원은 국비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역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질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을 위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광역의회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결의문에 대한 회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민형 기자

박 대통령 퇴진 방안 논의 야3당 대표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들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문제를 논의한다.

야3당 모두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원론에는 합의를 한 사항인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퇴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추진하다 무산, 아권공조에 파열음이 간 상황인 만큼, 이날 3당 회동에선 다시 한번 아권공조의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초 야3당 대표들은 16일 한세웅 신부 주재 하에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박 대통령 퇴진 문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모임 직전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 과정에 따른 '양극'이 야3당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를 향해 "비선이 있다"며 공격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추 대표에게 "정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길라임" 가명 쓴 막장 드라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검진센터 차용위원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는 보도와 관련, "시정을 낮은 드라마가 조기 종영하듯이 대통령은 민의를 잘 보시고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상한 대통령과 시크릿 청와대가 만든 막장드라마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이없는 조소를 보냈던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데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썼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을 화나게만 하기에 미안했나보다"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 모두를 망연자살하게 만들고 있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접입가경"이라며 "국가 안보와 다름없는 대통령의 활약이 최순실로 인해 외부 병원으로 유출돼 검사되고, 정유라 한 명을 압격시키기 위해 상위권 학생 2명에게 낙제점을 주는가 하면, 2천억원에 달하는 제3의 미르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길라임'은 지난 2011년 방송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하지원이 맡았던 극중 이름이다.

/뉴시스



우병우 구속수사 하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한 문재인(왼쪽 두 번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더민주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순실 국조' 위장에 비박 김성태

여야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김성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는 이완영 의원, 이만희·이해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황영철·하태경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총 9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이 간사, 도종환·손혜원·안민석·박영선·김한경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총 6명이 참여한다. 국민의당에선 김경진 의원이 간사, 이용주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이 특위 위원을 맡았다.

/뉴시스

"일반음식점에도 GMO 표시 의무화 하자"

김광수 의원 'GMO 표시 의무화법' 대표발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의무화될지 주목된다.

16일 김광수(국민의당·전주갑)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GMO표기에 예외조항이 많아 GMO표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GMO표시를 의무화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 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 표시

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GMO 안전표시제'를 통해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민형 기자

안철수 "박 대통령, 검찰조사 회피로 탄핵 대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최소화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장에 대통령의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장은 이후 있을지도 모를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인용해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헌법정신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놓고는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며 "헌법을 파괴해 놓고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민에 하나 개인만 살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하야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 총리의 대통령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까지 제가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했던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지도자회의'와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박 대통령 퇴진 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친박 세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만나자고 하면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들을 찾아갈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130711-중-46234 전주매일의 창간8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예수병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병원의 또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열정으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는 병원.
 환자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환경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병원.

예수병원은 늘 당신곁에서 평안을 주고 싶습니다.

560-7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1가 300) 대표전화_063.230.8114 고객지원센터_063.230.8181, 8196 협진센터_063.230.8989 응급의료센터_063.230.8282